

회원사 소식

최전남 남성기전(주) 대표이사,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당선



▲ 최전남 남성기전(주) 대표이사는 지난 1월 30일 한국 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제6대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최전남 남성기전(주) 대표이사가 지난 1월 30일 스카이스티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제13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이사장에 당선되어 향후 4년간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을 이끌게 됐다.

최전남 신임 이사장은 “조합 운영비 절감, 신사업 발굴, 투명한 경영을 통해 조합의 흑자경영구조를 정착시키고, 무엇보다도 화합하는 조합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조합의 현실적인 당면문제인 △조합추천소액 수의계약한도 1억원 상향 조정 △지명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활용 기반 구축 △소기

업 대상의 수의계약 제도화 △영세조합원사 수주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조합회비의 등급별 차등 부과 등의 개선을 통해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96년 설립된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의 공동구매/ 판매사업, 자금지원 및 수출입지원사업, 지도교육사업, 정보화사업, 조직관리 개선사업과 함께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 유지, 보수, 운전)사업을 병행, 조합원사의 사업환경 개선 및 발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